



제4차 농어업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1. 개요

- 일시/장소 : 2020. 5. 15(금). 15:00~18: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인원 : 23명(분과위원 20명중 12명 참석하여 성원 충족)

소 속	성 명
분과위원(12명)	김영재(분과위원장), 강마야, 정학철, 조병옥, 박일진, 박준기, 박종서, 서용석, 정명생, 윤금순, 조영숙, 이학래
사무국(6명)	손영준 팀장, 김상경, 김한승, 김창호, 이상규, 최수형
관계기관(3명)	김재민 서기관(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정미영 사무관(소득안정추진단), 김정화 팀장(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연구용역(2명)	이명환 교수(인천대학교), 김태훈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요내용

- ‘20년 농어업분과의 각 소분과 활동 및 운영계획(안) 보고
- 농특위 중점연구용역 결과 보고

2. 회의 결과

* 위원별 주요발언 별도정리

□ (보고1)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농어업정책팀장

주요
의견

- ⇒ 다만, 7.4 기점으로 잔여임기를 활동 할 위원을 위촉할지 아니면 신규위원을 위촉할지 논의 요망[손영준 팀장(06'21'')]]
- ⇒ 운영소위 결과 등 공유 필요[정명생 위원(13'42'')]]
- ⇒ 분과위 단톡방에 운영소위 결과 공유 요청[김영재 분과장(13'55'')]]

□ (보고2) ‘20년 농어업분과 소분과 활동계획 보고 : 각 소분과장

○ 가격 및 경영 안정 소분과

주요 의견	⇒ 농특위 논의 안건 건의[정학철 위원(28'20'')] - 코로나 사태 이후 식량안보(식량자급률) 보장을 위한 논의를 농특 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
----------	--

○ 농지제도개선 소분과

주요 의견	⇒ 농지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누구도 안함. 농특 위에서 사회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할 필요 있음 ⇒ 아울러, 단체 등 현장의 지지가 중요[김영재 분과장(51'20'')]
----------	--

○ 축산소분과

주요 의견	⇒ 토양양분관리제 논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참여하여 합의한 것은 큰 성과[김영재 분과장(01h 01'47'')] ⇒ 농식품부, 단체 등 관계기관 참여 필요[강마야 위원(01h 03'40'')]
----------	--

□ (공익형 직불 신규소분과 운영계획 보고) : 농어업분과장

- (공익형직불) 다양한 분야의 직불제 도입방향 분석 및 제시
- 공익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향, 유사연구 결과 분석 등

주요 의견	⇒ 소분과장으로 최준호 환경연합 사무총장 추천[김영재 분과장(01h 01' 47'')] ⇒ 전체 위원 동의표명(이견 없음)
----------	--

□ (분위원회 보고의안 논의)

○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방안 : 이명환 교수

주요 의견

⇒ 농특위 안은 현행 예산구조를 바꾸자는 것으로 마중물 측면의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음. 산업중심의 예산을 직불제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하지만 자칫 농업예산 축소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 우려됨.

- 생산성 예산과 직불제 예산을 둘 다 늘리는 것으로 병행했으면 함
[김재민 서기관(01h35'00'')]

⇒ 과거는 생산과 소득 그래프를 보면 '95년까지는 같이 올랐(인구, 소득수준 증가시기)으나 지금은 생산이 많아지면 소득이 떨어짐(소득정체, 저성장 시대). 이것은 생산이 늘수록 농민 보다는 소비자가 더 큰 효과를 본다는 것임

⇒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농촌에 와서 즐기는 것임, 즉 농촌에 와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줘야 함. 그 바탕이 다기능성·지속가능성임**[이명환 교수(01h 53'00'')]**

⇒ 생산에는 산업적 생산이외에 생태적인 생산도 있으므로 용어 구분유의 요망(생태적 생산은 장려할 사항)**[윤금순 위원(01h56'38'')]**

⇒ 1차 산업에 예산을 투입 했을 때 소비자·국민이 더 높은 후생을 받는다 것(재정구조 개편에)은 농정예산 확보하는데 이보다 좋은 논리(기재부 설득)는 없을 것임**[정명생 위원(01h 58'00'')]**

⇒ 기재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농정예산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것이 결국 전국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 지렛대를 삼으면 국민·기재부 설득 실현가능성 높아질 것임**[조영숙 위원(02h 00'20'')]**

⇒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의 농정 예산 변화에 대한 동의를 한다면, 즉, 조정하겠다는 서로의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론이나 사회적합의 방식은 얼마든지 논의 가능 할 것임**[김영재 위원(02h 04'50'')]**

- ⇒ 농특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 결과를 알리는 작업 중요하고, 그중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필요[박종서 위원(02h 13'25'')]
- ⇒ 보고서 가독성을 위해 지금 실태, 구조, 농가소득 현황이 나오고, 농산물 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재정의 변화 속에서 어떤 쟁점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실제 현장과 불일치한 것이 있다. 즉, 쟁점정리, 불일치, 앞으로 갈 방향은 이거다라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듯[박준기 위원(02h 15'00'')]

○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방안 : 김태훈 박사

주요
의견

- ⇒ 목표나 지향점은 명확하나, 향후 운영방향, 성과지표 측정은 미흡하여 하반기에 보완 마련 예정임.[정미영 사무관(02h 36'25'')]
- ⇒ 작년부터 선택형 직불 확대방안으로 단기 과제, 확대 과제로 의견을 제공함. 단기적으로 무농약, 유기직불을 3년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영구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으나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되어 유감임[박종진 위원(02h 41'09'')]
- ⇒ 많은 논의 후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든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함. 이 부분에 명확한 평가필요[정학철 위원(02h 45'20'')]
- ⇒ 농식품부에서도 제도적 허점 보완 고민하겠지만 현장에서는 다 주는 줄 알고 있음.[김영재 분과장(02h 47'57'')]
- 김태훈 박사 보고서 기초로 축산, 수산, 임업 쪽도 공익직불 논의 중임
- 농식품부와 농특위가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중임

3. 향후 일정

- 중점연구용역 결과 본회의 보고안건 상정 예정